

무주, 가설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지원

건축직 공무원들 165건 지원, 3천여만원 절감 처리기간 단축, 비용 부담 해소까지 호응 커

무주군이 건축 민원 주민들의 가설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을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농막을 비롯한 임시창고 등 가설건축물 신고 시 필요한 배치도와 평면도 등의 도면 작성을 건축직 공무원들이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행 시 때어난게 되는 민원인들의 경제적 부담(연간 3천여만 원)을 해소한 것을 비롯해 해당 절차 설명과 관련법규 이해, 도면작성

에 걸리는 시간적 부담까지도 말끔히 해소하고 있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권태영 건축팀장은 “올 한 해 가설건축물 관련해 195건이 신고 된 가운데 민원인들의 요청으로 도면 작성을 지원한 건수가 165건이나 된다”라며 “꼭 필요한 절차지만 주민들,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현황도면을 직접 작성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나서게 됐다”라고 전했다.

주민 이 모 씨(70, 무주읍)은 “밭에 컨테이너를 하나 갖다놔야 해서 신고를 하러 갔는데 도면까지 서류에 그려 넣어야 하니 답답하더라”며 “대행사에 맡기면 들어가는 돈이 또 만만치 않을 텐데 그걸 공무원들이 다 해주니까 돈도, 시간도 절약이 되고 무엇보다 믿을 수 있어 안심이 되더라”고 말했다.

무주군의 가설건축물 현황도면 지원은 민원 주민들의 불편을 주민 입장에서 직접 살피고 해소한 사례로, 무주군은 이를 계기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 발굴과 제공에 더욱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건강 100세! 대상포진 예방 접종하세요”

장수군보건의료원, 29일까지 50세 이상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

장수군보건의료원(원장 유봉욱)이 50세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대상포진백신 무료 접종을 시행한다.

이번 대상포진 무료접종은 민선 7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11만3000원보다 저렴한 3만18250원으로 접종할 수 있다.

현재 의료원 접종은 지난 22일로 1차 완료가 된 상태며, 25일부터 각 면 소재지 보건지소 및 장애인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29일까지 2차 예방접종이 진행된다.

음 달 2일부터 의료원 예방 접종실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50세 이상 장수군민 중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국가유공자는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며, 60세 이상 장수군민은 유료 접종을 할 수 있다. 접종 시 주민등록증 및 지원 대상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예방접종을 받은 한 군민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비싸서 접종을 고민했었다”면서 “지원을 통해 저렴하게 접종을 할 수 있어 좋았다”고 전했다.

이 예방접종 비용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일정 및 문의 사항은 장수군의료원(063-350-2661 또는 2663)으로 하면 된다.

한편, 대상포진은 주로 면역력 저하로 몸의 신경절에 잠복해 있던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활성화 되면서 생기는 질환으로 주로 발열과 오한, 근육통을 동반하며 팔다리나 몸통, 얼굴 등 피부에 수포가 생긴다.

증상이 보일 경우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하며 예방접종은 1회만 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노인종합복지관 - 무주우체국, 무료급식 제공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무주종합복지관(관장 이영재)에서는 27일 무주우체국과 연계하여 노인, 장애인, 여성 등 300여명의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지역 내 소외계층에게 추운 겨울을 잘 보내기 위한 이불을 6가구에 전달했다. 이날 무주우체국 임직원들이 배식 봉사에도 참여하며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무주종합복지관 이영재 관장은 “지역사회 소외계층에게 훈훈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신 무주우체국 관계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 내 소외계층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이 최근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지원을 위한 차량을 지원 받았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기대

진안군사회복지협 좋은이웃들, HUG 차량지원 받아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송상모) 좋은이웃들이 최근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지원을 위한 차량을 지원 받았다.

이번 차량지원 사업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후원했으며,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소외계층에게 적시에 도움을 손길을 쥐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됐다.

좋은이웃들 사업은 복지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봉사자들이 복지 소외계층을 찾아 내 공적서비스나 민간자원을 연계

하는 민·관 협력 사업이다.

진안군 좋은이웃들은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3,500여명의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했으며, 4,500여건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했다.

송상모 회장은 “이번 차량지원 사업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신속한 상담과 긴급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따뜻하고 활기찬 지역복지공동체를 구축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 스마트농업 교육장 현장 평가회

기술 공유, 현장 교육장 활용 계획 등 점검

진안군은 지난 25~26일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교육장에서 현장 평가회를 가졌다.

이번 평가회는 농촌진흥청 주관 시범사업 추진 사업장 42개소와 28개소 시군 농업기술센터 담당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농업 확산 모델로 조성한 교육장 추진 현황과 현장 견학을 통한 스마트농업 기술 공유, 현장 교육장 활용 계획 등을 점검 했다.

진안군 테스트베드 교육장은 725㎡ 규모로 온실 2동, 복합환경 제어기, 양액기, 관제실 등이 조성되어 있다. 현재 방울토마토 5개 품종과 딸기 1 품종을 실증 재배되고 있다.

2020년부터 스마트농업을 시작하는 젊은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실제 영농 현장에 직접 필요한 양액관리, 환경제어, 재배관리 등 실습이 가능한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 될 계획이다.

진안군농업기술센터 김필환 소장은 “스마트 농업은 우리가 준비하는 미래 농업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 농업을 준비하는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교육장 운영에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지역 매아리

진안군, 안전도우미 양성 교육

진안군은 27일 군청 강당에서 안전사고 방지와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도우미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 이장, 부녀회장, 복지도우미, 독거노인관리사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취약계층의 생활안전을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는 안전도우미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독거노인관리사 뿐만 아니라 최 일선에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마을 리더인 마을 이장과 부녀회장 등을 교육에 참여시켜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향상에 중점을 뒀다.

교육은 어르신들의 가스안전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가스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취급 요령, 가스사고 발생 주요사례, 가스사고 예방법에 대한 교육과 심정지 발생 시 심폐소생술 방법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등 실습 위주로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최근 크고 작은 재난사고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생활밀착형 안전 교육 강화로 군민과 함께 안전진안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의료급여수급자 교육

무주군이 관내 신규 및 중점관리 의료급여수급자 354명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교육은 의료급여제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 방법을 알리는데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28일까지 나흘 간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최된다.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는 무주읍과 부남면, 안성면, 설천면, 적상면에서 △의료급여 제도와 △자가 건강관리 및 △보건복지서비스이용 안내,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선택병원제도 안내, △의료급여증 관리(도용행위)에 대한 교육과 개별 상담이 진행됐다. 28일에는 적상면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신규 대상자(신규수급자, 관외전입자, 보호유형(종별)변경자)은 1종에 해당하는 국민기초, 국가유공, 보장시설수급자와 2종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와 군입대자 총 135명이며 중점관리 대상(과다 의료이용자)이 219명이다.

무주군은 의료급여제도의 적정 이용을 위해 의료급여사례관리사를 통한 의료급여수급자들의 건의사항 청취와 관련 교육, 홍보에 매진한다는 방침으로 그 효과에 대해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